

2024년 제30회

법무사 1차 시험 총평

헌법	이재영 법무사	저녁반
상법	이상수 박사	오전반
	하영태 박사	저녁반
민법	이준현 박사	오전반
	이혁준 교수	저녁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김지후 교수	공통
민사집행법	김지후 교수	저녁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김경중 법무사	공통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법무사	저녁반
공탁법	이천교 법무사	저녁반

『 헌법 』 총평

담당교수: 이재영 법무사(저녁반)

범위	목 차	내 용	출제분야	
			판례	조문
총 론	헌법의 의의			
	제정/개정/변천			
	헌법의 보장			
	헌정사			
	국가 구성요소			
	기본원리			
	기본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 ○	○
기 본 권	총론	기본권의 주체 과잉금지원칙 교사의 수업권 국가인권위원회	○ ○ ○	○
	포괄적 기본권	평등의 원칙 임대차 존속기간	○ ○	
	자유권	접견교통권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개성공단 중단조치 학원법 위반	○ ○ ○ ○	
	사회권	계모자 - 법정혈족관계 소멸 출생등록될 권리	○ ○	
	청구권			
	참정권			
	국민의 의무			
통 치 구 조	기본원리			
	국회	정족수		○
	대통령	국가긴급권	○	
	정부	국가원로자문회의		○
	법원			
	헌법재판소	가처분 탄핵소추	○ ○	

출제 범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와 같습니다.

올해의 법무사 헌법 문제는 2023년(지문이 길고,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문은 반 페이지 정도 짧아 졌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작년보다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 부근에 있는 분들을 전제로,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최대 1문제 정도는 점수하락이 예상됩니다.

헌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법원9급 기출문제에서 최근 등장했던 지문은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의 입장을 묻는 어려운 지문들은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1책형 14번(2책형 11번) 문제의 2번 지문입니다.

②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위 지문은 부정적, 단정적 표현으로서, 전후의 다른 맥락없이 문장 자체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1%라도 있게 되면 논리적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의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9급의 기출문제를 보면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삽입하여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심지어 2012년도 법원행시 기출지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1책형 14번(2책형 11번) 문제는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수험생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도록 출제문제를 분석하고, 그 각 문제의 난이도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출문제의 분석]

1. 우선 이번 상법의 출제는 매우 정성을 드려 문제를 구성하는 수고를 들었다고 본다.
2. 2024년 상법기출문제는 기존의 출제형태와 많이 다른 경향을 보였다.
첫째는 박스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어 풀이시간이 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셋째는 법조문의 출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출제경향으로 볼 때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을 열심히 익힌 수험생들은 오히려 정답을 찾는 것이 더 쉬웠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3. 2023년도와 비교하여 체감난이도는 낮아졌다고 보인다.
이번 출제지문들이 2023년 판례와 기존의 기출판례를 벗어나는 판례출제문제는 2-3개 정도였으며, 위에 있듯이 난이도 상 또는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수험생마다 다를 것이나, 1년동안 꾸준히 기출판례와 지문 및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는 전제로 난이도를 정함)는 6개정도로 보여진다.
따라서 상법은 80점 이상(100점 기준)의 고득점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 판단된다.
4. 2025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법전을 중심으로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지문과 새로운 판례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상법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5. 작년에 비해 1-2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

6.

[2024년 기출문제 정답과 출제영역 및 난이도(1책형)]

21. ② 상행위 금융리스 중하
22. ① 주식회사 주식 중하
23. ② 회사총칙 중상
24. ③ 주식회사 기관(주주총회) 중하
25. ⑤ 주식회사 자본금감소 중상
26. ⑤ 상법총칙 상업사용인(지배인) 하
27. ④ 보험총론 고지의무 중상
28. ② 어음수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 중상
29. ③ 상법총칙 상업사용인(부분적포괄대리권 사용자) 중
30. ② 주식회사 기관(주주총회) 중하
31. ④ 주식회사 기관(이사회) 중하
32. ④ 상행위 위탁매매업 하
33. ⑤ 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 중상
34. ⑤ 주식회사 종합 중
35. ① 어음수표 어음항변과 집행문제 상
36. ② 주식회사 주식 중
37. ② 상행위 운송주선업 중상
38. ② 상행위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하
39. ③ 주식회사 주주 중
40. ④ 상행위 총칙 하
41. ① 손해보험 총론 하
42. ① 상법총칙 영업양도 하
43. ⑤ 해상운송 중 (내용상으로는 상)
44. ③ 주식회사 신주발행 하
45. ② 주식회사 기관(이사) 하
46. ④ 상법총칙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하
47. ① 보험총론 중(정답을 찾는 난이도는 하)
48. ③ 상행위 소멸시효 중상(판례를 아는 경우 중하)
49. ① 주식회사 기관(이사) 중하
50. ④ 회사총론 합병 하

I. 인사말

안녕하세요. 상법전임 하영태입니다.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

**** 기출해설은 하영태 상법 유튜브채널, 카톡방, 서울법학원 자료실에 영상으로 업로드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II. 상법 기출 총평

1. 난이도 및 특징

- ◆ 난이도 2024년(30회) 상법문제는 2023년(29회)에 비교하면 **난이도면에서 오히려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체감은 출제형식의 변화로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 ◆ 30회의 출제의 특징은 **출제형식을 변형하여 박스형 문제가 6개나 출제** 되었다. 박스형문제는 5지선다형과 난이도 면에서 차이 나는 것은 없지만 방식이 생소하여 초보자들은 당황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 ◆ **보험법(3문제), 해상법(2문제), 어음수표(2문제)에서 골고루에서 출제되었다.**
- ◆ **평소에 교과서에 없는 지문으로 구성된 종합문제 3개~4개(회사법, 해상법과 어음수표법)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항상 있는 형태라 평균점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 ◆ **대부분의 정답 지문은 평소 강조하던 내용에서 출제되어 공부를 충실히 한 합격권의 수험생이라면 [23~26문제]는 무난히 풀었어야 하고 풀었으리라 판단된다.**

2. 출제경향

- ◆ 문제의 내용도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문(판례+조문)이 대부분이고 일부 최근 판례(필자 제공)에서 모두 출제(대부분 지문으로 구성됨) 되었다.
- ◆ 형식면에서 박스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리라 본다. 내용을 정확히 공부했다면 5지 선다형과 다를바 없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 ◆ **2~4개의 문제는 매년 교과서에 없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문으로 혼동을 주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전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 할 것 없이 스킵하고 넘어가고 마지막에 시간이 있을 때 법적 마인드로 풀 필요가 있다.**
- ◆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 과목이 되리라 생각된다.
- ◆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II. 수험전략

- ◆ 상법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
- ◆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다.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 ◆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을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IV. 별표: 상법기출 분석표

대주제(문제수)	출제내용*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카톡방, 법학원 게시판 기출해설+영상 참조!!
상총(4)	-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영업사용인 - 상업장부와 상업등기 - 영업양도의 개념과 경업금지
상행위(5)	- 소멸시효 종합문제(난이도:上) - 유치권과 유질계약 -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 위탁매매업 - 금융리스계약
회사(14)	- 1인회사 법리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 주주평등의 원칙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 주주총회 결의 하자과 직무집행정지제도 - 이사회 결의사항과 전단적 대표행위 - 이사의 보수 -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 - 주식회사제도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난이도:中) - 신주발행 - 자본금 감소절차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 주식회사의 청산과 해산절차 등(난이도:上)
보험(3)	- 보험계약의 통칙 - 고지의무 - 손해보험의 통칙
해상(2)	-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와 운송주선인의 지위 - 해상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등(난이도:上)
어음수표(2)	- 이득상환청구권과 백지어음 - 어음행위와 소송절차 관계(난이도:上)
합계	30문제

2024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크게 어렵다거나 생소해 보이는 문항들은 2~3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완주했던 수험생들이라면 다들 무난하게 고득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래 도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박스형식의 문항을 6개나 출제하여 다소 현장난이도를 높이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지만, 해당 박스형식 문항의 선지들이 비교적 평이한 조문이나 판례로 구성되어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시험 대비 비슷하거나 한 개 정도 어려운 수준)

한편 2023년 및 2024년에 생성된 최신판례의 내용을 담은 선지들이 꽤 보이는 바,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험이기도 했다.

자세한 기출문제 분석은 아래 최근 3년간 단원별 기출경향과 최근 3년간 형식 및 내용별 기출경향 분석표를 참고하기로 한다.

■ 법무사 1차 민법 최근 3년간 단원별 기출경향 추세흐름

단원 \ 실시년도	2022	2023	2024
민법총칙	5	6	7 ⁽³⁶⁾
물권법	11	9	8 ⁽⁴⁰⁾
채권법	19	15	20 ⁽¹⁰⁴⁾
친족상속법	5	4	4 ⁽¹⁹⁾
종합문제	0	6	1
총계	40	40	40

■ 법무사 1차 민법 최근 3년간 형식 및 내용별 기출경향 추세흐름

형식 \ 실시년도	2022	2023	2024
판례를 묻는 지문	173	192	181
조문을 묻는 지문	27	18	18
박스형식의 문제	1	5	6
사례형식의 문제	4	1	0
옳은 것 고르기	37	39	33
옳지 않은 것 고르기	3	1	7

I.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혁준입니다.

먼저, 힘든 과정을 잘 버티고 이겨낸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민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총 평

1. 개괄적 평가

- ① 우선 금년 민법 시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간혹 다소 지엽적이고 생소한 판례도 나왔지만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및 강의시간에 누차 강조하고 짚어드렸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문이 매우 길어서 시간안배에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미 지문이 길다는 점은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이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문을 포인트별 패턴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는 점, Box형 문제에서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른바 소거법)을 연습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그 어려움이 지나치게 과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매우 난감했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 ② 금년 시험은 Box형 문제(선별형)가 6문제(준사례형 포함)나 출제되어 역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였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것은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시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고,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에도 출제하여 연습시킨 바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③ 위와 같은 점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및 시험장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처했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만 볼 때 작년에는 8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합격선이라면, 금년에는 40문제 중 10문제 정도 틀리는 것으로 합격선이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개별적 평가 및 예상

(1) 주제별 전체적 평가

- ① 금년 시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A급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되, 조문의 비중은 낮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며, 판례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A급 이상의 판례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한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13개 정도였습니다.
- ② 하나의 문제에서 여러 제도나 주제에 관한 내용을 각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는데, 대략 1문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민법의 제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기 보다는 대체로 각 주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을 묻는 것에 그쳤다고 보이며, 이러한 면에서 변별력은 크게 높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2) 영역별 평가

① 작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형·사례형
7문제	17문제	11문제	4문제	5문제

② 이와 달리 금년에는,

민 총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Box형
8문제	20문제	8문제	4문제	6문제

계속적으로 Box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채권법의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3) 문제 내지 지문의 구성면에서의 평가

1) 조문과 판례의 비중 등

조문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의 지문은 총 200개 지문 중 대략 13개 정도였습니다. 또한 지문의 길이는 길었으나 이는 매년 같은 현상이었고,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습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평소 판결요지를 볼 때 일단 판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을 살피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판례의 키워드나 핵심 문구 등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일정한 패턴으로 지문이 읽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역별 주제(쟁점)의 구성 - 문제나 지문으로 보이는 중요주제(쟁점)별 개괄적 제시

민 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칙과 권리남용 ▶ 권리의 주체·객체 ▶ 법률행위의 해석 ▶ 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 ▶ 대리 ▶ 법률행위의 취소(흠 있는 의사표시 포함) ▶ 조건, 기한 및 기간 ▶ 소멸시효
채권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의 목적 ▶ 채무불이행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채권양도 ▶ 상계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2문제 - 종합문제와 보증문제)
채권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행항변 ▶ 계약의 해제 ▶ 증여 ▶ 매매 ▶ 소비대차·준소비대차 ▶ 임대차(2문제) ▶ 도급 ▶ 여행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계약 ▶ 조합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물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와 유치권 ▶ 물권적 청구권 ▶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 취득시효 ▶ 공동소유(2문제 - 종합문제와 공유문제) ▶ 명의신탁 ▶ 저당권
가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분할청구 ▶ 친생자관계부존재+인지+친권 ▶ 양육 ▶ 상속회복청구

이렇듯 각 영역별 중요한 주제나 쟁점에 대해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년 출제되었던 또는 중요한 주제인, 예컨대 변제, 불법행위, 법정지상권 등이 단독·고유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Box형·사례형 문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문제는 앞으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Ⅲ. 글을 마무리하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의 당락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험생 모두 그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므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알차고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시험이 1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든 예상되는 컷라인 근처라서 매우 불안하든, 발표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내년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의 여신을 붙잡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여신의 뒷모습만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긴 한숨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 헤쳐 나왔던 여러분이기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완주한 노장수험생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최근 7년간 시험지 면수

	응시자 (출원자)	1차시험 합격선 (cut-line)	1교시 (헌·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244명 (3,704명)	58.5점	23 p.	22 p.	2 p.
2019년	2,488명 (4,135명)	60점	22 p.	23 p.	1.5 p.
2020년	2,501명 (4,413명)	65점	23 p.	23 p.	1.5 p.
2021년	3,010명 (4,910명)	62.5점	27 p.	23 p.	2 p.
2022년	3,148명 (5,647명)	60.5점	25 p.	23 p.	2 p.
2023년	3,849명 (7,616명)	59.5점	28 p.	24 p.	2 p.
2024년	? 명 (8,255명)	? 점	30 p.	25 p.	1.5 p.

◎ 2024년 출제 분석

1. 총 10문제 중 총칙에서 3문제, 신고각론에서 5문제, 가족관계등록비송 1문제, 불복절차·과태료 1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2. 법조문에서 85%정도 출제되었는데, 일부는 지엽적인 법조문이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으며, 미기출 예규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가. 법조문에서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 - 총 8문제

1책형 41번(민법 878조), 42번(법 14조의3), 43번(법 59조), 46번(법 75조, 법 99조), 47번(법 44조의3, 법 44조의4, 법 121조), 48번(규칙 51조), 49번(법 42조), 50번(규칙 50조)

나. 예규에서 정답지문으로 출제된 문제 - 총 2문제

1책형 44번(규칙 60조, 예규 567호, 예규 621호), 45번(예규 611호).

3. 기출지문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 4문제

◎ 2024년 출제 총평

1. 문제 난이도(難易度)

《기본문제》 기출지문을 정답으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

가족관계등록법 (총 10문제)	《기본문제》	【까다로운 문제】	1차시험 합격자 제2과목(민법, 가등법)평균점수
2021년	4문제	6문제	64.789
2022년	5문제	3문제	68.667
2023년	5문제	4문제	68.49
2024년	5문제	3문제	?

《기본문제》 - 5문제

기출지문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는 1책형 41번, 42번, 46번, 49번 등 4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47번은 출생신고 통보제에 관한 개정법률로서 객관식 강의 시 법·규칙·개정예규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숫자 정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총 5문제는 반드시 맞추어야 할 기본문제에 속합니다.

【까다로운 문제】 - 3문제

1책형 45번, 48번, 50번 등 3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2. 지문의 구성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2024년 시험에서도 법조문에서 8문제 출제되었고, 박스형 4문제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주요 예규에서 출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총 10문제에서 5번을 정답으로 5문제 출제된 것으로 보아 세심하지 못한 미숙한 출제임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3. 득점 예상

총 10문제 중 6문제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7문제 이상 득점하였다면 합격자 평균 이상의 고득점입니다. ‘기본문제’가 5문제(50점) 출제되었으므로 법조문과 기출지문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6문제 정도 득점은 무난(無難)하였을 것입니다.

4. 수험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조문과 예규의 총량은 많은데, 매년 10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아 기출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법조문의 출제 비중이 높으니, 먼저 양이 적은 법조문을 공부한 뒤에 기출 예규를 추가하여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공부하여 6문제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과목에 해당합니다.

◎ 2024년 합격선(cut-line) 관련 예측 (변동 없음)

이번 2024년은 작년 2023년 대비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예상 cut-line(합격선)과 관련하여 **변동 없음**으로 예상합니다.

◎ 맺으며

역경(逆境)속에서 홀로 고난(苦難)한 수험생활을 묵묵(默默)히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完走)한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최근 7년간 기출문제 분석

목 차		18	19	20	21	22	23	24
제1편 총 설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1	2				1	1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특종신고 등)				1	1		
	제7장 등록부등의 공개		1	1	1	2	1	
제2편 등록사무 처리절차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	2	1			1	
		제3절 직권 정정.기록			1		1	1
		제4절 접수 심사 등		1	1			
		제5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1
		제6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쇄					1	1
	제2장 출생신고	1		1	1	1	1	2
	제3장 인지신고					1	1	
	제4장 입양신고			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1						
	제6장 혼인신고				1			
	제7장 이혼신고	1		1				
	제8장 친권에 관한 신고				1			
	제9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0장 사망신고	1						1
제11장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제12장 성.본변경신고								
제13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1	1	1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1장 국제등록사무 총론		1		1		1	
	제2장 국제등록사무 각론	1	1					
제4편 등록부의 정정		1	1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록부창설 등)	2		1	2	1		1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1	
제7편 벌칙, 과태료				1				
총 합 문 제		2	2			1	1	2

2024년 제1차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활시위는 당겨졌으니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발표 때까지 차분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

◎ 최근 7년간 시험지 면수

	응시자 (출원자)	1차시험 합격 선 (cut-line)	1교시 (현·상, 민·가)	2교시 (집·비, 부·공)	민사집행법
2018년	2,244명 (3,704명)	58.5점	23 p.	22 p.	8 p.
2019년	2,488명 (4,135명)	60점	22 p.	23 p.	9 p.
2020년	2,501명 (4,413명)	65점	23 p.	23 p.	8.5 p.
2021년	3,010명 (4,910명)	62.5점	27 p.	23 p.	10 p.
2022년	3,148명 (5,647명)	60.5점	25 p.	23 p.	9.5 p.
2023년	3,849명 (7,616명)	59.5점	28 p.	24 p.	10 p.
2024년	? 명 (8,255명)	? 점	30 p.	25 p.	9.5 p.

◎ 2024년 출제 분석

1. 총론 4, 재산명시절차등 0, 부동산경매 12, 유체동산 1, 채권집행 8, 비금전집행 2, 보전처분 8문제 각 출제되었습니다.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총론	2	8	6	5	6	6	4
재산명시절차 등	1	0	0	1	1	1	0
부동산경매	22	14	20	17	15	17	12
유체동산	1	1	0	0	1	0	1
채권집행	4	5	3	7	7	3	8
보전처분	5	7	6	5	5	6	8
기타(강제관리, 선박등, 비금전집행)	0	0	0	0	0	2	2
합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35문제

2.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이 2018년 - 50 여 개, 2019년 - 50 여 개, 2020년 - 50 여 개, 2021년 - 55 여 개, 2022년 - 60 여 개, 2023년 - 75여 개 출제되었는데, 금년 2024년 시험에서는 60여 개 출제 되었습니다(약 35% 미기출지문 출제, 65% 기출지문에서 출제).

3. 35문제 중 3문제(1책형 2번, 10번, 31번)가 법조문을 정답 지문으로 출제하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4. 8월 최종 마무리 특강(사무관승진시험문제, 최신판례) 자료에서 6문제 정답으로 출제 - 2024년 4월 법원승진시험(사무관 20문) 중에서 4문제(1책형 4번, 5번, 8번, 33번)가 이번 법무사 1차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고, 최신판례(40 개) 중 2문제(1책형 1번 문제 - (17)판례, 11번 문제 - (34)판례(기본서 434면 수록))가 정답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이외 (1)판례, (22)판례, (36)판례, (38)판례 출제 됨).

◎ 2024년 출제 총평

1. 문제 난이도(難易度)

《기본문제》 기출지문을 정답으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까다로운 문제】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

민사집행법 (총 35문제)	《기본문제》	【까다로운 문제】	1차시험 합격자 제3과목(민집법, 상등법)평균점수
2021년	19문제(54점)	6문제	60.650
2022년	17문제(48점)	5문제	63.247
2023년	16문제(45점)	11문제	57.255
2024년	24문제(68점)	6문제	?

이번 2024 시험에서는 《기본문제》는 최소 24문제(1책형 - 1번, 2, 3, 4, 5, 6, 8, 10, 11, 13, 14, 15, 18, 19, 22, 23, 24, 26, 27, 29, 30, 32, 33, 35번), 【까다로운 문제】 6문제(1책형 - 7번, 16, 17, 20, 21, 31번) 출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기본문제》가 8문제 늘었으며, 【까다로운 문제】는 5문제 줄었습니다.

2. 지문의 구성

- 1) 미기출지문은 다소 출제되었으나(175개 지문 중 약 35% 미기출지문 출제, 65% 기출지문에서 출제),
- 2) 《기본문제》의 정답 배려가 많았고,
- 3) 근래의 시험 중 정답을 찾기 쉬운 《기본문제》가 예년(16문제~19문제) 대비 이번 2024 시험에서는 24문제로 6문제 더 출제되었습니다.

3. 출제 총평

이번 2024 시험에선 2과목(민집, 상등, 부등, 공탁) 시험지 총25페이지 중 민사집행법은 9.5페이지로 예년과 비슷하였고, 미기출지문은 적지 않았으나 정답배려가 많았으며, 《기본문제》가 24문제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총 35문제 중 23문제(66점) 득점하였으면 합격권 점수이고, 26문제(74점) 이상 득점하였다면 합격자 평균 이상의 고득점입니다.

◎ 2024년 합격선(cut-line) 민사집행법 예측 - 4문제 상승

이번 2024 시험은 작년 2023년 대비 4문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는 6문제 이상 쉬웠다고 할 것이나, 전부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 맺으며

역경을 딛고 수험을 완주하여 응시(應試)한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뜨거운 박수를, 시험이 끝났으나 합격선(cut-line) 발표 때까지 심적으로 어려울 수험생 모두에게 심심(深深)한 위로(慰勞)와 격려(激勵)를 보냅니다.

◎ 최근 7년간 기출문제 분석

구 분		18	19	20	21	22	23	24	
제1편 총 칙	집행기관				1		1		
	즉시항고		1					1	
	집행이의	1				1		1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			1					
	집행비용		1	1				1	
	집행 담보·보증·공탁								
제2편 강제집행									
총 칙	집행당사자					1			
	집행권원		1		1	1			
	집행문		1	1				1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적극적 요건, 집행장애)	1		1		1	1		
	집행문구제절차		1				2		
	청구이의의 소		1	1	2	1			
	제3자이의의 소						1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2	1	1	1	1		
재산명시 절차 등	재산명시				1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1			
	재산조회								
부동산 강제경매	압류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		1			1	2	
		강제경매의 요건, 강제경매의 신청			1	1		1	
		강제경매개시결정(심리, 목적물 조사)	1					1	
		기입등기촉탁, 강제경매개시결정 송달							
		압류의 효력					1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		1			1	
		부동산 이중경매	1		1		1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1	1		1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현금 화	부동산경매의 매각조건	1		1	1			1
		배당요구종기결정·공고·고지, 채권신고 최고		1	1				1
		현황조사, 평가, 최저매각가격 결정		1			1	1	
		매각물건명세서	1	1			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		1	1		1	

		개별매각, 일괄매각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
		매각 실시 절차			1	1			1
		공유자의 우선매수							1
		새 매각						1	
		매각결정절차	2	1	1		1		
		매각대금의 지급	1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	1		1	1		
		소유권의 취득	1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1			
	배당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	1	1	1			2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	1	1			1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		1				1
		임금채권		2		1	1	2	1
		조세·공과금채권				1			
		가압류채권	1			2			
		배당표의 작성(배당순위, 구체적인 배당방법)			1				
		배당기일의 실시(배당이의)	1	1	1			1	
		배당이의 소송	1		1			1	1
배당의 실시			1		1				
경매신청의 취하			1						
	부동산경매 종합문제	3		1	1	2	3	1	
부동산 강제관리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1	
유체동산		1	1			1		1	
채권집행	집행의 대상(피압류적격)	1			1	1	1	1	
	압류명령			1	2	1		3	
	추심명령	1	1				1	1	
	전부명령	1	2		1	2		2	
	특별한 현금화방법						1		
	유체물의 인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1			
	집행의 경합			1	1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	
	배당절차		1			1			
	채권집행 종합문제	1	1	1	2	1			
비금전집행 (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2	1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형식적경매)			1	3	2	2	1	1	
제4편 보전처분	보전소송의 관할	1		1					
	보전소송의 당사자	1							
	보전소송의 소송물		1	1	1	2		1	
	보전처분 신청, 심리와 재판		1	2	2	1		2	
	보전처분의 집행, 집행취소		2		1	1	2	3	
	본집행으로의 이전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1		1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1		2	1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	1							
	보전처분 종합문제	2	3				1	1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 업 등 기	총론		3.5	3.5	3	2	2.5	14.5
	상호					1		1
	무능력자							0
	지배인		1					1
	합자조합					1		1
	합명회사				1			1
	합자회사							0
	주식회사		5	7.5	4	6	6	28.5
	유한회사			0.5			1	1.5
	유한책임회사							0
	외국회사		1					1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채무자회생법등)			1	1	2	3	7
비 송 사 건	총칙		1			1		2
	민 사 비 송	법인에 관한 사건			0.5	1	1	2.5
		신탁에 관한 사건			1	1		2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5	1	1.5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1			1
		민사비송 종합문제				0.5		0.5
	상 사 비 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3		1.5		4.5
		사채에 관한 사건					0.5	0.5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0
		상사비송 종합문제				1.5		1.5
	법인등기		0.5					0.5
	과태료 사건			0.5	1		0.5	2
총계		15	15	15	15	15	75	

■ 제30회 시험 총평

1. 문제 배치와 유형적 특징으로 인한 체감 난이도 상승

①책형, ②책형 모두 시작하는 문제인 36번과 37번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문제와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서 작성에 관한 최신선례'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점에 배치되어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를 급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문제들에서 지문이 길거나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문제들로 인해 자신감이 급속히 하락하여 흔들린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아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15문제 중 무려 5문제나 출제되면서 시간 부족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 지문 난이도에 비하여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문 구성 상의 특징

상업등기 12.5문제, 비송사건절차 2.5문제로 영역별 출제 비중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업등기 종합문제도 주식회사에 관한 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서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 길이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아서 지문을 읽는 것 자체에는 큰 시간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8개 정도의 지문이 평상시에 깊게 다루지 않았거나 신규 선례로 구성되었는데 정답에 영향을 주는 지문은 1~2개 정도였으므로 예년보다 지문 구성이 복잡하거나 두세번 생각해보아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 많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지문 난이도 분석

문제별 지문 난이도를 하급(★)에서 상급(★★★★★)으로 분류해 보면 상급 3문제, 중상급 2문제, 중급 2문제, 중하급 3문제, 하급 5문제로 분석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1문제 정도 난이도가 하락한 특징을 보인다.

물론 위 1.에서 밝힌바 대로 지문이 아닌 문제 배치와 유형적 특성이 수험생을 당황스럽게 한 점으로 인하여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지지는 않았겠으나, 개별 지문들의 난이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지레 포기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는가 가 점수를 결정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본 과목을 정상적으로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8~9문제 정도는 기본점수로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침착함을 유지하였다면 10~12문제를 맞춘 고득점자도 꽤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레 포기하거나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아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수험생들의 수가 예년보다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5문제 이하의 저득점자도 예년보다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커트라인과 관련하여 작년 대비 0.5 ~ 1 문제 정도의 커트라인 하락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학습방향

상법과 연계된 상업등기 부분, 특히 주식회사 부분을 주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고루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비송재판 총론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에 수반하여 개별사건의 특칙들을 강의에서 제시하는 두문자 중심으로 최대한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반복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에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지점등기부 폐지, ② 관할외 본점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③ 본점이전, 합병, 분할 등의 처리등기소 조정, ④ 모바일 전자신청 제도 시범도입, ⑤ 전자적 이의신청 방법 추가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배치되는 부분들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수험생들은 이를 체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먼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 년까지 한 길을 달려오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셨기를 바라며 2024년 부동산등기법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II. 총평(제30회 시험의 특징)

1. 조문·예규·선례의 비중

- (1) 올해 시험을 분석한 결과 조문은 35지문, 예규는 60지문, 선례(및 판례)는 55지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율로 계산하여 보면, 조문(23%), 예규(40%), 선례(37%)의 비율로 집계되었습니다(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조문의 출제 비중이 줄고, 예규·선례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험	출제 비중	2024년 시험
39 %	조문	23 %
35 %	예규	40 %
26 %	선례 (판례, 실무제요)	37 %
100 %	전체	100 %

- (2) 예규·선례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조문은 원론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는 반면에, 예규나 선례는 구체적인 절차와 사안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조문보다는 예규·선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정답지문의 유형으로는 조문 정답이 5문제(17%), 예규 정답이 11문제(37%), 선례 정답이 14문제(46%)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시나 정답지문도 예규·선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

- (1) 올해 시험은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최신 예규·선례의 비중이 적게 출제되었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오래된 선례 등기실무의 내용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기출지문이 이번에도 대거 등장하여 기출분석을 충분히 한 수험생분들은 선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올해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최신 예규·선례의 내용들은 내년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문제의 유형

- (1)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 23문제, 옳은 것을 고르는 형식이 4문제, 개수 등을

묻는 **박스형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거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험생분들의 **오답률은 상승**하게되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 (2) 또한, “**재외국민**”과 “**가처분**”에 대한 파트는 안그래도 수험생 분들이 **어려워** 하는 파트인데 **사례형에 박스형 문제**로도 출제가 되어 **각 문제에 대한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3)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문제에서는 등기기록례를 보고 문제를 답하라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은 부담 없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4) 최근 경향을 볼 때 출제자는 **계속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여 난이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단순히 지문만을 보고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복수정답의 가능성

- (1) ① 책형 기준 8번 문제【**구분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가 복수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답안 ①번, 복수정답 가능지문 ④번).
- (2) 종래 「202002-1호」 선례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 (3) 이후 2021년 「전원개발촉진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원개발사업자도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참조).
- (4)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조하여 주시고,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2024. 09. 11. (수) 12:00”에 최종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총평

① 예규·선례의 지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된 점, ② 옳은 것을 고르거나 개수를 묻는 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 ③ 사례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점, ④ 오래된 선례나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출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이도는 상승하였으므로 **작년 기준 -3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며 더 높은 능선을 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추스르시고 심기일전하시어 앞으로의 알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30회 공탁법은 작년 29회 공탁법에 비해 시험문제 분량(지분)은 약 반페이지 정도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간단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모두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지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작년과 비슷하게 매우 생소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문은 다행히 적은 편이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박스형 문제는 1문제 밖에 없었으며,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1개만 출제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적을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출제지문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탁법을 정상적으로 준비를 했던 분들에게는 불의타 없이 무난할 수 있던 시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볼 때,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의 상황은 함께 시험보는 부동산등기법의 영향, 시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하게 공탁법의 “출제 난이도” 측면에서만 검토해 보았을 때 이 번 공탁시험 문제는 작년 시험과 비슷하거나 1문제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합니다.